

“불교사회복지 도약 기틀 다지는 한해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년 맞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불교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았다. 불교복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학술발표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에 부응하는 실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불교사회복지의 역량이 한데 모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컸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08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대거 내놓았다. 불교사회복지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프로그램들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 종사자들과 사찰이다. 종사자들과 사찰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불교사회복지를 행하는 주체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 한 해 다양한 불교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종사자의 불교사회복지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교사회복지 '색깔' 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불교저널사진>

불교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불교복지 프로그램의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직업이라 그런지 '보살심'만 요구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신적 수양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스트레스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앙의 역할인 셈이다.

또 종사자들에게는 종교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필요하다. 타종교시설이나 일반시설에서 일하는 것 못지 않은, 그보다 더 좋은 종사자 프로그램은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담보하게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부터 ‘불교생태’ ‘인간소외’ 쪽에 집중해서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며 “불교 인력의 사회 관심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불교사회복지 색깔 만들기, 초석을 다지는 해로 가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램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결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는 20~30대의 4년차 미만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 이상이 양질의 불교교육을 받고 싶어했다.

그러나 불교교육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종사자들 중에는 비불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너무 불교적이지 않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필수교육으로는 ‘불교복지 아카데미’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리중심 불교교육에서 벗어나 교리와 현장의 소리, 실제 생활과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도 ‘불교와 욕망’, ‘연기’ 등 불교 신자가 아니라면 공감하기 힘든 개념을 끌고 오기는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층 삶에 다가 있다. 예를 들어 ‘중도적 삶의 실천’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불교에 입각한 현실적 중도,

즉 생태적 삶이나 느낌의 삶에 대해 강의하는 식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생태와 복지다. 이는 불교복지가 일반 사회복지의 대안복지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종사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들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선택과정으로 마련된 ‘웰 다임(Well being) 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업과 행복한 임종에 관한 문제들을 불교식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올 3월말~4월초 시행될 이 과정에서는 스님·의사·종교학자 등 10명의 전문가가 죽음준비교육 특강에 나선다. 특히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오진탁 교수의 ‘웰 다임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죽음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꾸민다. 오 교수는 “죽음의 질 향상 없이 삶의 질 향상을 논하지 못하는 시대이므로 불교사회복지 특유의 죽음준비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지도자를 양성하면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찰 복지교육=사찰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정립에 불교사회복지의 빠질 수 없는 영역이다. 일례로 2007년 말 일어난 태안 지역 기름 유출 피해 사건을 보면 예산 수역사는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교구본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사찰과 지역이 긴밀하게 연결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대로 된 사찰-지역사회 간의 관계는 품격 있는 준비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찰사회복지아카데미1’부터 개설한다. 이는 종단 내 스님·종무원·신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있는 재가복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환경 변화와 불교사회복지 방향 ▲지역사회 내 시설 유지 및 설치 전략 ▲사찰 자원봉사·해외구호 활동 사업 탐색 ▲대안복지로서의 불교 등에 대한 1박 2일간의 교육으로 실시된다.

사찰사회복지아카데미1은 올 2월부터 현재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는 사찰 100여 곳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를 통해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찾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를 불교식으로 타개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단 아동탈출·공공음악·노년 수행공동체 등의 특색 있는 사찰프로그램 교육도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찰사회복지아카데미2’도 현재 프로그램의 골격을 마련하고 있다. 사찰사회복지아카데미2는 직업시설 운영, 시설 수탁, 법인 마련 등의 세세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불교사회복지의 차별화된 부분까지 강조하게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충환 부장은 “사찰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찰의 불교사회복지 참여도도 높이고 지역사회의 더불어 살아가는 사찰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정청 2007년 교정수기 공모
우수상 **논산 안심정사 법안 스님**

20년 가까이 교도소를 드나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교정법회는 내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중 하나다. 나를 기다리는 수용자 법우들과 후원해주는 공덕회원들이 있기니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법회를 한지 5년쯤 되던 해의 일로 기억한다. 특별면담을 신청한 수용자가 있었다. 당시 33세 청년이었다. 그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던 터였다. 외모도 좀 무섭게 생겼고 얼굴에는 칼자국이 있었다. 그는 첫마디가 “저는 딱 신도입니다”였다. 딱신도란 스님들이 교도소에 올 때 떡을 잘 해 오기 때문에 떡을 먹으려는 목적으로 법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떡을 먹으려고 참석했던 법회에서 법문을 듣다보니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고, 평생을 통해 참회하면서 특히 20대에 자기의 칼에 죽은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다고 했다. 조직폭력배로 살며 사람들을 해왔던 시간들을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불교반장이었던 하 법우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하 법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매결연으로 받은 영지금을 모았다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양팔과 겨울 내복을 사주는 사람이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의 장기수로 의지할 것이라곤 한 달에 한번 들어주는 영지금 만원 뿐인데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하여 쓴다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그를 보면서 수용자의 마음속에도 관세음보살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노래 법회’로 새로운 희망 찾아

지난 달 법회 때였다. 불교반을 4년 8개월이나 이끌어왔던 법우가 갑자기 반장직을 내놓는다는 것이었다. 봉사활동도 잘하면서 법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의외였다. 그의 말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교도소내의 결코 작지 않은 특권을 포기할만한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에게 그 소중한 기회를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말처럼 뉘우심을 갖는 기분이었다. 가장 보살님이 교도소에 오셔서 수용자들을 교화하려 하신다면 역시 수용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에 틀림없다. 남들이 다 구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도 구원받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나는 그 법우에게서 보았다.

이런 수용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보다 흥미 있으면서 효과적인 법회를 이끌까 고민을 많이 했다. 끊임없이 생각하다보니 요즘 다른 법회에 활용하는 노래방법회를 나도 한 번 해보게 됐다. 수용자들이 좀 더 마음을 밝게 바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맑고 아름다운 법회로 노래로 선정한 함께 부르기도 하고 상품을 걸어놓고 법우들에게 응성공양을 하도록 권유했다. 요즘 이 노래방법회가 인기가 아주 많아 흐뭇하다.

세상은 혼탁하고 서로 믿기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맛이 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와 교정직원들을 만나면서 무척 기쁘고 보람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복의 힘이 강하면 복된 쪽으로 이끌려가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악업과보에 의하여 끌려가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것이 진리다. 수용자들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한은 나 자신을 위해서, 수용자들을 위해서 법회활동을 할 것이라 다짐해 본다.

생명나눔 선정 1월의 환우 김태곤씨

“다시 뛰고 싶은 젊은이에게 힘을 주세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임면)가 2008년 1월 환우로 급성골수성백혈병·밀리피셔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태곤(25·사진)씨를 선정했다.

김씨가 이런 큰 병에 걸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할 정도로 건강했으니까. 하지만 복학을 앞둔 2006년 11월, 김씨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게다가 1차 항암치료를 마친 후 밀리피셔증후군이라는 희귀말초신경병증으로 근육이 마비돼 지체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밀리피셔증후군은 초기에 발견됐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 치료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백혈병도 좋아지면 좋으련만, 아직은 몇 차례 항암치료는 물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한다. 항암치료 중에도 재활의학과 치료는 계속돼야 한다.

현재 가족 중 김씨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 1억 7000만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게다가 당뇨와 고혈압이 생겨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어머니는 호텔 조리원으로 일했으나 현재는 김씨의 간병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 가족 중 유일하게 소득이 있는 대학생 형은 군 제대후 생활비와 동생 치료비를 마련해 보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다.

김씨의 치료비만 지금까지 1000만원이 넘었다. 남은 치료와 타인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경우 4000~5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정성이 필요하다. (02)734-8050후원계좌 번호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김경진 기자

중생구제에 12대원을 세우신 청동약사여래불 인수봉에 나투하셨습니다!

大醫王이라 불리시는 약사여래부처님 친견후 일어난 기이한 사례들...

병마에 시달린 수많은 중생들의 환희 불법수행중 선몽하여 가람불사하던 중 온전히 보전된 청동약사여래부처님께서 나투하셨습니다.

어둠속에 계셨던 부처님 이제 여법히 모시고 예를 갖추게 되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여러 중생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병마에 시달리는 중생... ● 삶에 지친 중생...

나무동방약사유리광불

문의 02)992-0032 / 02)992-7770